



한재각 외 옮김  
당대/A5신/238면/7500원

# 생명공학, 생태계에 대한 항구적 폭력

반다나 시바의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을 읽고

박병상 |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생명공학은 생태계에 대한 항구적인 폭력이자 토착민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해적질이다. 다국적기업은 탈취한 자원을 생명공학을 이용해 토착민에게 비싼 값에 되판다. 반다나 시바는 이를 '서구문화 및 경제의 헤게모니'라고 규정하면서 생물종과 전통문화의 다양성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지난 4월 4일, 거룩한 자세로 벼 게놈 해독 소식을 전세계로 다전하던 미국계 다국적기업 몬산토는 자료의 무상 공개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수확량 개선은 물론 병해충 저항력과 환경 적응력이 증진된 새로운 품종의 쌀을 개발하고 농약의 존도를 줄여 환경오염을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벼 게놈 해독에 참여했던 농업과학기술원의 은무영 박사는 "쌀 게놈의 해독은 인간 게놈 해독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거들었다.

## 생명공학은 다국적기업의 '해적질'

이는 지난 5월 스위스 과학자가 들뜬 목소리로 발표한, 비타민A를 함유하는 소위 '황금쌀'과 유사한 기형 농산물 작물이 세계 시장에 거둬 출하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 정창호 박사는 원하는 영양성분을 첨가시킨 곡물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맞장구쳤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내에서도 금호·삼성·LG와 같은 대기업, 풀무원과 같은 식품회사에서 관련 연구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렇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한 생명공학은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1971년 제너럴 일렉트릭사 연구원인 인도 출신의 차크라바티는 유전자가 조작된 미생물 슈도모나스로 세계 최초의 생명공학 특허를 미국에서 받았지만 차크라바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를 재배열한 것에 불과했다. 반다나 시바는 이를 '서구 문

화 및 경제의 헤게모니'라고 몰아붙인다.

해물리학자에서 반핵운동가로, 반핵운동가에서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에코페미니스트로, 이론과 실천을 두루 겸비한 환경사상가로 세계적 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인도의 반다나 시바는,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한재각 외, 당대)에서 생명공학을 가난한 토착민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해적질로 평가한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착민들의 전통 의료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충분한 설명없이 헐값에 사들이거나 무단 탈취하는 수법으로 자원을 반출한 뒤, 거기에서 얻은 특종물질에 배타적 특허를 획득한 다국적기업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토착민들에게 되팔아먹는 상업주의에 그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운운하며 토착민의 전통자원과 그 이용 자체를 막무가내로 봉쇄하려 든다.

인간 이외의 생물을 한낱 도구적 가치로 폄하하고, 유전자결정론을 근거로 개별 유전자를 취사선택하는 생명공학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올 생태계에 대한 항구적인 폭력이다. 생명공학을 환원주의에 매몰된 남성주의 지식의 엔클로저 운동으로 규정하는 반다나 시바는 특허를 위한 지식 소통을 틀어막을 뿐 아니라, 경쟁투자로 인한 자원낭비와 위험성이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생태주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으려 무던히 애쓴다.

생명공학은 식량문제를 해결해준다? 녹색혁명의 전례를 들어 단작의 해악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반다나 시바는 거대자본이 투여하는 생명공학의 속성상 단작은 국경을 넘고, 농작물 단순화를 넘어 문화와 정서의 획일화, 계층화와 식민화가 노골화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는 곧 종속이다. 자신의 생존권을 다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넘겨준 계층은 거대자본의 화려한 수사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 전통문화의 다양성에서 대안 모색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반다나 시바는 비폭력을 주장하고, 보전윤리를 강조한다. 생물종 다양성의 가치를 주목하고 환경에 어울리는 전통문화의 다양성에서 근본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과학기술·과학철학에 관한 책을 주로 발행하는 '당대'에서 비교적 최근 출간한 이 책은 생명공학에 대한 비판의식이 남다른 젊은 활동가들이 번역했다. 거대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전문가들이 일방적 논리로 채색한 장밋빛 환상에서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구하고 싶은 깨어있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